

# 고려대장경 전산화 현황

- 고려장경 · 신수장경 전산화본 일자대조 보고를 중심으로 -

김재성

(고려대장경연구소 선임연구원)

## 목 차

- |                         |                         |
|-------------------------|-------------------------|
| I. 고려대장경 전산화 2002년판의 소개 | II. 고려대장경과-신수장경 일자대조 보고 |
| 1. 자료가공 분야              | 1. 고려-신수 대교(對校)의 목적     |
| 2. PROGRAM 분야           | 2. 고려-신수 대교(對校)의 의의와 과정 |
| 3. TK2002개발의 목적         | 3. 대교 과정에서 정리된 각종 목록    |
|                         | 4. 맺는말                  |

## I. 고려대장경 전산화 2002년판(TK2002)의 소개<sup>1)</sup>

TK2002는 2000년도에 발표한 TK2000<sup>2)</sup>과 2001년에 발표된

- 
- 1) TK2002개발 책임은 연구소 전산부장 대석스님이 맡고 있으며, 이 부분의 보고는 대석스님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
  - 2) TK2000에 대해서는 허인섭, 「전산화본 고려대장경 2000 완성의 학술적 의미와 미래 전망」(『전자불전』 제 2집, 서울: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00, 95-119쪽)을 그리고 TK2001에 대해서는 허인섭, 'Report on the Digital Tripitaka Koreana 2001', (『전자불전』 제 2집, 서울: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01, 89-100쪽)을 참조.

TK2001의 UPGRADE판으로 본 연구소에서 고려대장경을 전산화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의 마무리 작업이자 결정체이며 또한 학술적인 연구로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는 TK2000과 TK2001에서 배려하지 못했던 불교 및 한학의 전문가를 위한 배려를 부족하나마 포함시켰으며 그간 연구소에 축적되어 왔던 학술적인 연구 성과도 일부 반영하였다.

TK2002에서 크게 중심축이 되는 분야는 자료가공분야와 이 자료를 사용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과 관련된 PROGRAM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각 분야와 관련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가공 분야

자료를 가공하는 기본원칙은 일반인은 물론 불교 및 한문 전문가들을 배려한다.

이미 대만의 중화전자불전협회(Chinese Buddhist Electronic Text Association, CBETA, [www.cbeta.org](http://www.cbeta.org))에서 공개한 신수장경<sup>3)</sup>과의 상호 연동을 구현한다.

연구소의 축적된 연구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전산화본이 되도록 하며, TK2002로 공개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바로 WEB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한다.

먼저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UniCode Text본이 제공된다. 불교학

---

3) 중화전자불전협회(Chinese Buddhist Electronic Text Association, CBETA, [www.cbeta.org](http://www.cbeta.org))에서 공개한 신수장경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재성 「CBETA 전산화본 대정신수대장경의 특징」 (『장경도감』 43호,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2, 12-13쪽)참조.

및 한학의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고려대장경의 이체자<sup>4)</sup>를 그대로 살려낸 MS WORD본(국외용) 및 HWP본(국내용) 제공한 예정이다.

이미 전산화된 신수대장경과의 상호연동을 하여 표준대장경인 신수대장경과 가장 정확한 대장경인 고려대장경을 언제라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려대장경의 이용을 통한 불교 및 한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려고 한다,

4년 전부터 대장경연구소가 진행해본 표점본 연구성과를 일부 공개하여, 고려대장경을 바탕으로 한 불전 연구를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한다.

세부사항으로는 고려장경 및 신수장경의 오자와 신수장경 및 고려장경의 판본상의 차이점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여, 문헌학적인 한문불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MS WORD본, 고려장경 UNITEXT본, 신수장경 UNITEXT본, 이미지본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고려대장경의 이용도를 높여준다.

## 2. PROGRAM 분야

TK2002의 프로그래밍 기본원칙은 유니코드 사용 환경이 안정되어 있는 MS Windows 2000 이상의 환경에서 한국어, 중국어(번체), 일본어, 영어의 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국어 버전을 만드는데 있다. 그리고 TK2002의 기능은 MS WORD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4)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선별한 이체자 약 2만자를 UniCode 한자 Extension C 영역으로 등록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세부사항으로는 글자통계기능을 제공하여, 글자의 자종수와 종류, 각 자종별 빈도수, 총 글자수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일자색인 추출기능을 추가하여 각 글자의 자종에 따른 출처의 행 단위로 자동 추출되게 한다.

한자사전 기능을 강화하여, UniCode 한자에 대한 대장경연구소 자료와 M. Muller의 자료를 제공하며, 대장경연구소에서 2000년 12월에 출판한 『고려대장경이체사전』의 내용을 제공한다.

불교용어 사전기능을 강화하여 국내용으로는 이미 공개하고 있는 연구소 자료를 제공하며, 국외용으로는 Muller의 자료와 대만의 『불광대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 대장경해제를 제공하며, 기존의 TK2001에서 구현된 기능들인 경전열람기능과 검색기능 등을 강화한다. 검색 기능에는 검색어를 입력할 때, 한중일 및 영어권의 사용자를 고려하여 Grobal IME를 사용한다. 그리고 검색어 입력시 색인어를 제공하며,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 부수, 총획수순의 방법을 제공한다. 검색어의 편리한 입력을 위해 20여만여개의 준비된 색인어를 활용할 예정이다.

검색에는 전문가를 위한 MS WORD본을 대상으로 하는 이체자 검색과 일반인을 위한 UniCode Text본을 대상으로 하는 정자 검색이 있다.

검색 분류체계에는 신수장경 분류체계에 따른 검색과 고려장경의 분류체계에 따른 검색이 있다. 검색방법은 시대별, 역자별, 저자별, 지역별 그리고 주제별 검색이 있다.

검색대상에는 고려장경을 대상으로 하는 검색과 신수장경을 대상으로 하는 검색이 있다.

검색결과와 본문 보기는 대상에 따라 신수장경과 고려장경을 보여줄지 결정되며 본문 보기에서는 신수장경과 고려장경이 같이 연동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배려한다.

### 3. TK2002개발의 목적

95년 이후 진행된 고려대장경 전산 작업에 일단락을 짓고 마무리하는데 TK2002개발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한글대장경 및 기타 대장을 통합하는 통합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산화를 통해 연구 중심의 대장경연구소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II. 고려장경과 - 신수장경 일자대교(一字對校) 보고<sup>5)</sup>

### 1. 고려-신수 대교(對校)의 목적

고적(古籍) 전산화에 있어 원문의 정확한 재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000년도까지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추진해 온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그 구체적인 목표로 전산화된 이체자본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성과로 30,000여자에 달하는 이체자가 추려졌고 이체자의 폰트까지 제작되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 많은 글자들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

---

5) 고려장경과 신수장경의 대조 작업에 직접관여한 대장경연구소의 인력은 다음과 같다. 전체 작업의 전산프로그램은 연구소 전산부장이신 대석 스님이 담당하셨고, 작업 팀장은 전영근, 작업에 참여한 연구원은 명혜정, 신은주, 한혜성, 이윤심, 전경렬, 박석홍이다. 본 보고는 전영근 팀장이 중심이 되어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해졌으므로 연구소는 4byte code와 고려워드를 개발해 unicode를 기준으로 이체자를 정리해 왔다. 이체자팀이 고려장경에서 검출된 이체자들의 정자를 밝혀 해당 정자의 unicode에 종속시키고 전산지원팀에서 그 순서에 따라 코드를 매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闕이라는 글자의 정자가 岳임을 학술지원팀에서 확인하면 전산지원팀에서는 岳의 unicode인 5CB3을 앞의 2byte로 하고 뒤의 2byte는 글자가 검출된 순서대로 숫자를 매겨 闕의 코드는 5CB30003이 된다. 이 이체자들은 검색시 각 글자별 검색과 아울러 unicode로 환원되어 검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체자본의 완성도는 일차적으로 원문 글자 자형의 충실한 재현이었으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검색의 정확도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체자 교정시 대조 자료는 영인본 스캐닝본과 4byte code 글자이다. 정자정보는 코드로만 나타날 뿐 정자의 자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교정의 유일한 기준은 이체자의 자형이다. 정자정보에 상관없이 보이는 그대로의 자형 일치여부에 교정의 기준을 두는 것이다. 이는 비전문가들도 쉽게 교정할 수 있으므로 인해 신속하고도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교정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교정법으로는 고(古) 판본의 특성상 나타나는 유사한 글자의 구별, 파형(破形), code 처리 과정에서의 한계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자본으로의 전환시 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達의 이체형과 達의 이체형 중에는 동일한 자형이 있는데, 이를 양쪽 코드에 편입시킨다 해도 이체 입력자가 일일이 내용 검수를 하지 않고는 바르게 입력할 수 없으므로 이체자본에서는 자형이 올바르게 입력된다 하더라도 unicode본에서 제대로 변환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고려장경 자체의 파형과 영인과정에서 먹물의 다소에 따른 글자의 변형 등이 존재하며, 옛 판본에서는 혼하게 구별되지 않는 巳-己-巳,

日-日 등도 이체자본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으나, 실제 검색본에서는 오자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고려대장경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이체자본 자체의 오류도 재점검하고 실제 검색본인 unicode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장경과 신수장경의 전산 대교(對校)를 실시하였다.

## 2. 고려-신수 對校의 의의와 과정

우선 일자대조 대상으로 신수장경을 선택한 것은 신수장경의 전산본이 존재하며,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신수장경이 활자화 과정에서 드러낸 오류들은 많은 이들에게 이미 지적되었으나, 현대적인 정자개념에 가장 근접한 판본인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신수장경이 고려장경을 저본으로 했으므로 고려장경의 원문을 복원하기 위해 대교(對校)하기에는 가장 무난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수장경과의 대교(對校)는 현재 가장 일반적인 텍스트와 역사상 가장 정확도가 높다는 텍스트의 비교라는 측면도 있었다. 실제로 샘플 작업을 통해 실제 대조 결과를 살펴본 결과 나타나는 양상들은 단지 전산적인 오류만을 체크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려대장경연구소 교정 실무팀은 되도록이면 대조를 통한 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거나 대조 결과의 내용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크게 네 가지 항목이 정리되었는데, 첫째는 통용자 둘째는 수정대상 - 각종 오자(誤字), 셋째는 판본차이자, 넷째 신수관련 자료들이다. 이 네 가지 분류는 다시 전산본과 원본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분류되었고 각 내용마다 별도로 책임자를 두어 검수하게 하였다.

이 결과물들은 일차적으로는 고려장경 전산본의 오류를 수정하

는 데 이용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보다 정확한 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용자의 경우, 우선은 자형 그대로 살려두어 원문의 충실함을 기했으나 전공자에 의해 교감될 경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본(善本) - 고려장경이 그러했듯이 - 을 편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판본차이자 중에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글자들이 있어서 양 대장경의 오류 및 차이를 연구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실제로 판본차이자 중에서는 비전문가의 눈으로도 오류가 확실한 글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들은 각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더불어 유사자는 대장경 외의 한적(漢籍)들을 독해하거나 전산화 혹은 출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두 전산본은 각기 상이한 형식과 순서로 편집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처리도 요구되었다. 우선 고려장경의 편제대로 신수장경을 다시 엮고, 각 전산본의 위치 정보를 행까지 달아 원문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대 일로 대응된 전산본을 전산적으로 일자대교하여 서로 다른 unicode(혹은 정자코드)로 쓰였거나 글자수가 다른 부분은 모두 목록으로 작성되도록 하였다. 작성된 목록을 MS Excel file로 만들어 분류에 편의를 도모했으며, 목록에 표기되는 내용은 고유번호, 신수장경, 고려장경 위치정보, 신수 고려 자형과 해당 고려 자형의 이체자본 한 행이었다. 또한 전산 대조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특기사항도 기록하였다.

작업과정 중 가장 자종이 적은 대반야경 부분에서도 글자수가 5만여 자가 검출됨에 따라 중복해서 출현하는 예들 중 단순 이체자의 경우는 목록 추출에서 제외하였다. 豐과 豊, 黑과 黒, 衆과 眾 등의 예이다. 이런 글자들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합하여 검색의 편의를 돕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작업의 총 과정은 뒤에 도표로 자료를 첨부하였다.



### 3. 대교 과정에서 정리된 각종 목록

아직 대교 작업이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각 항목당 발표의 범위는 정리된 내용에 따라 한정하기로 한다.

#### 3.1 통용자 목록(1차 분류시 명칭-註釋 대상)

범위 : 고려장경 영인본 12,13,16,19,20,21,22,24,27,29권

대상 : 1차 분류 과정에서 통용자로 편성된 약 5만자, 1,200종 글자

사용된 자료는 註釋대상<sup>6)</sup>으로 분류된 글자들로서 각 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권당 대략 5-6천자 정도에 달한다. 이 중에서 다시 중복 사례로 추출된 예들은 대표적 사례 한 가지만 선택하고 모두 삭제하였다. 그리하여 10권의 작업을 마친 결과 약 1200여 개의 대표 사례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글자가 달리 쓰였다고 해서 전혀 별개의 글자들이 쓰인 것이 아니고, 두 글자 상호간에는 음이 유사하거나 의미가 유사하거나, 혹은 형체가 유사하다는 등의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둘째, 고려에서 A를 쓰고, 신수에서 A'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니고, 그 바로 뒷 페이지에서는 고려가 A', 신수가 A를 쓰기도 하며 고려나 신수 자체 내에서도 A와 A'가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sup>7)</sup>

---

6) 註釋 대상 처리란- 판본 대조 과정에서 쓰인 연구소 内の 용어임- 신수와 고려 대장경에 쓰인 글자들 중 그 위치는 동일한데 사용된 글자가 서로 다른 경우 註釋 대상으로 분류함

7) 물론 이 A와 A'는 일정한 공통점을 가진다고는 해도 그것들이 사용된 문장의 의미를 면밀히 따져본다면 A와 A' 중 어느 하나가 보다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

A와 A'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기에 서로 통용된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1200여 개 글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의미를 해석하고 일일이 字典 등을 참조하여 정리한 결과 A와 A'의 관계는 크게 다음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가 있었다. 다음에서 그 대표 사례들의 유형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류 유형은 1차 분류로서 보다 나은 분류 유형이 있다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 두대장경에 사용된 통용자 유형 분류.

1. 同一字族 義符를 사용한 경우 [138例]
2. 同音의 聲符를 사용한 경우(음, 의미 유사) [27例]
3. 형체가 유사한 경우
  - ㄱ. 義符의 書寫형체가 유사한 경우 [129例]
  - ㄴ. 자형 판독의 오류로 보이는 경우 [57例]
4. 古今字를 사용한 경우 [80例]
5. 通假字를 사용한 경우 [132例]
6. 이체자 [312例]
7. 전자한자자전에 수록할 글자들 [45例]
8. 위의 예가 두 가지 이상 포함되는 경우 [268例]

### 3.1.1 同一字族 義符를 사용한 경우

同一字族 義符의 글자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사용

---

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의 개수가 너무 방대하여 일일이 의미를 해석하고 어느 것이 타당한지 확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번 작업에서는 그 중 대표적 사례(1200가지)를 추출하여 분석과 검토를 함으로써 이 글자들이 어떤 공통점으로 인해 통용이 되는지 그 개괄적인 유형을 분류하고 대체적인 상황을 소개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하는 한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形聲字의 특성에 대해 잠깐 살펴해보겠다.

형성자는 義符와 聲符가 결합되어 또 다른 합체자를 이루는 것으로서, 義符는 해당 글자의 의미를 나타내고 聲符는 해당 글자의 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嘆은 義符 “口”(“입”으로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는 데서 “한탄하다”의 의미를 나타냄)와 聲符 “董”(“탄”과는 疊韻 관계)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이러한 형성자는 義符와 聲符를 결합시켜 話者가 원하는 음과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빠르게 발전하는 어휘를 민활하게 따라잡기에 유리하였지만, 때와 장소 사람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임의로 義符나 聲符를 달리 쓸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유사한 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欠”이란 글자는 “입에서 숨을 내쉬는 모습(혹은 하품을)을 형용”한 것인데, “口”와는 “입”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口”대신 “欠”을 義符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嘆”과 “歎”의 관계가 그러하다. 두 글자는 義符가 서로 다르지만 두 글자가 나타내는 기본적인 의미는 차이가 없다. 8)

이렇게 義符 상호간에 일정한 공통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통용해서 쓸 수 있으며, 이러한 義符를 同一字族 義符<sup>9)</sup>라고 한다.

고려와 신수에서 자주 통용되는 몇 가지 同一字族 義符는 口와 言, 口와 欠, 广과 厂, 肉과 骨, 手와 角, 日과 火, 日과 月, 玉과 石, 土와 瓦, 등이 있으며, 고려와 신수에서 同一字族 義符를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물론 이런 글자들의 생성 초기에는 어떤 뚜렷한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유사한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두 글자 중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느끼고 실제그렇게 사용하게 된다.

9) 이규갑 교수님의 <同一字族研究> 참조 바람. [중국어문학논집] 제9호. 1997.8

	B	C	D	E	H	I
1	T08a0180_r0777a19	[狂+王+百] 獼猴	K0001V20F0789a02L	獼猴	犴+百, 犴: 義符(犬, 彡) 통용	의부통용
2	T16a0907_r0286a21	[疑/木] 藻中	K0001V28F1286a21L	藻中	疑/木, 疑: 義符(木, 石) 통용. 모두 장애의 뜻임. 정자는 廢로 할 수 있음.	의부통용
3	T17a0721_r0071a28	[糲+米+草] 吹之	K0001V20F0100a17L	糲吹之	糲, 糲: 義符(韋, 彡) 통용	의부통용
4	T21a1841_r0824a28	訶責學	K0001V12F1044a07L	訶責學	呵, 訶: 義符(口, 言) 통용. 呵와 訶 모두 꾸짖다, 질책하다의 의미 있음. 입으로	의부통용
5	T04a0192_r0087a01	渴今我	K0001V24F0866a16L	渴今我	竭, 渴: 義符(立, 水) 통용. 음, 의미 유사.	의부통용
6	T04a0202_r0388a16	徑往馳	K0001V28F1028a12L	徑往馳	逕, 徑: 義符(辵, 彡) 통용	의부통용
7	T21a1884_r0687a09	徑便不	K0001V12F0086a04L	徑便不	逕, 徑: 義符(辵, 彡) 통용	의부통용
8	T16a0842_r0972a08	雞狗短	K0001V18F0127a16L	雞狗短	雞, 雞: 義符(鳥, 隹) 통용.	의부통용
9	T22a1426_r0309a09	沽客念	K0001V21F0118a22L	沽客念	估, 沽: 義符(人, 水) 통용. 보조설명: 酷(고); 술팔다, 팔다. 沽(고); 원래 물이름	의부통용
10	T14a0688_r0822a14	沽酒一	K0001V20F1218a16L	沽酒一	估, 沽: 義符(人, 水) 통용. 보조설명: 酷(고); 술팔다, 팔다. 沽(고); 원래 물이름	의부통용
11	T24a1484_r0866a28	咬五巧	K0001V24F0286a16L	咬五巧	齧, 咬: 同一字族 義符(齒, 口) 통용. 음, 의미 유사.	의부통용
12	T81a1802_r0780a02	毆擊等	K0001V18F0828a02L	毆擊等	毆, 毆: 同一字族 義符 통용.	의부통용
13	T24a1461_r0847a19	歐熱血	K0001V22F0607a22L	歐熱血	歐, 嗶: 同一字族 義符(欠, 口) 통용. 모두 "토하다"의 의미 가진. And 신수와의 권	의부통용
14	T24a1482_r0727a20	堀山眾	K0001V24F0886a17L	堀山眾	堀, 堀: 同一字族 義符(土, 山) 통용	의부통용
15	T02a0122_r0620a19	惓今當	K0001V18F0466a07L	惓今當	惓, 惓: 同一字族 義符(心, 人) 통용. 모두 "피곤하다"의 의미로 쓰임.	의부통용
16	T04a0212_r0978a10	惓是故	K0001V24F0658a06L	惓是故	惓, 惓: 同一字族 義符(心, 人) 통용. 모두 "피곤하다"의 의미로 쓰임.	의부통용
17	T16a0864_r0788a01	厥錯以	K0001V18F0844a20L	厥錯以	厥, 闕: 同一字族 義符(厂, 門) 통용	의부통용
18	T18a0861_r0227a08	窺瞻仰	K0001V18F0786a18L	窺瞻仰	窺, 闕: 同一字族 義符(穴, 門) 통용	의부통용
19	T28a1821_r0040a08	岐道寬	K0001V14F0786a18L	岐道寬	歧, 岐: 同一字族 義符(止, 山) 통용	의부통용
20	T17a0748_r0870a28	岐支是	K0001V20F1216a06L	岐支是	歧, 岐: 同一字族 義符(止, 山) 통용	의부통용
21	T18a0864_r0721a19	伎兒作	K0001V18F0818a06L	伎兒作	技, 伎: 同一字族 義符(手, 人) 통용	의부통용
22	T81a1816_r0858a28	伎樂笑	K0001V14F0218a04L	伎樂笑	技, 妓, 伎: 同一字族 義符(手, 女, 人) 통용. 보조설명: 伎樂, 技樂, 妓樂은 모두	의부통용
23	T24a1482_r0980a19	伎樂園	K0001V24F0818a07L	伎樂園	技, 妓, 伎: 同一字族 義符(手, 女, 人) 통용. 보조설명: 伎樂, 技樂, 妓樂은 모두	의부통용
24	T16a0808_r0200a18	伎樂之	K0001V28F1146a08L	伎樂之	伎樂, 技樂, 妓樂: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樂士"를 말하는 것으로서 伎(從)	의부통용
25	T28a1821_r0081a26	綺語貪	K0001V18F0866a06L	綺語貪	綺, 綺: 義符 통용. 綺語: 교묘히 꾸민 말. 불교에서 말하는 十惡의 하나이다. 그	의부통용
26	T28a1441_r0909a04	膿血內	K0001V24F0188a12L	膿血內	濃, 膿: 義符(水, 肉) 통용. 보조설명: "고름"은 몸에 있는 질병이므로 肉편방을 시	의부통용
27	T18a0861_r0281a09	瑤而莊	K0001V18F0788a06L	瑤而莊	纒絡, 瑤絡: 義符(糸, 玉) 통용. 갓끈 장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따라	의부통용
28	T18a0861_r0724a16	冷水故	K0001V18F0800a18L	冷水故	冷, 冷: 同一字族 義符(冫, 冫) 통용. 보조설명: 冷: 물이 清涼한 모양. 冷: 차가울	의부통용
29	T10a0308_r0971a12	靈萬響	K0001V12F0881a12L	靈萬響	捰, 捰: 義符(石, 雨) 통용. 捰은 "霹靂"이라고도 한다. 捰의 捰化이기도 하	의부통용

## 첨부자료 1. [義符 통용]

### 3.1.2 同音의 聲符를 사용한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성자의 聲符는 表音이 주요 기능(물론 聲符가 의미도 함께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이므로 꼭 그 聲符가 아니어도 同音(쌍성, 첩운 포함)의 성부로 바꾸어 쓸 수 있었다.

예를 들면 “痒”, “癢” 두 글자는 모두 “가렵다”의 의미를 가지며 다만 聲符인 羊이 養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에서 同音 聲符를 사용한 글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려대장경 전산화 현황

Microsoft Excel - 1차 보고서 첨부자료.html				
= 推:同"推", 商推:헤아리다. 推:손 뒤집을 "확", 함이 같은 聲符로 대체 통용.				
B	C	D	E	M
1	T28a.1442_p0789b.16	推重輕	K0001V22P0178a.14L	推重輕 [推:同"推", 商推:헤아리다. 推:손 뒤집을 "확" 함이 같은 聲符로 대체 통용.
2	T08a.0154_p0057a.27	餽遺之	K0001V16P0868a.10L	餽, 餽:聲符(食, 鬼) 통용. 보조설명:饋遺, 餽遺는 물건이나 음식을 보내다의 의미. 同音의 聲符 대체에 의한 통용으로서 두 글자간의 의미 변화 없음. (참조-신수 饋遺에서의 遺은 오류로 보임)
3	T28a.1495_p0418a.24	飢餓時	K0001V21P1058a.09L	飢, 餓:同音의 聲符(几와 規)를 대체시킴.
4	T08a.0140_p0918b.14	蠡迎葉	K0001V20P0984b.22L	蠡, 蠡:聲符([蠡-虫], [蠡-虫]) 통용. 이 두 글자는 음, 의미 유사하고, 어느 한 쪽으로 통합되지 않음. 蠡는 주로 소리로 쓰이고, 蠡는 좀벌레, 표주박, 소리로 쓰임. 장경내에서 이 두 글자는 음역자로도 쓰이고, 소리나팔로도 쓰임.
5	T28a.1442_p0789b.06	蠡擊鼓	K0001V22P0071a.06L	蠡, 蠡:聲符([蠡-虫], [蠡-虫]) 통용. 이 두 글자는 음, 의미 유사하고, 어느 한 쪽으로 통합되지 않음. 蠡는 주로 소리로 쓰이고, 蠡는 좀벌레, 표주박, 소리로 쓰임. 장경내에서 이 두 글자는 음역자로도 쓰이고, 소리나팔로도 쓰임.
6	T15a.0907_p0284a.24	魃飛屍	K0001V26P1238a.18L	魃, 魃:聲符(黨, 失)통용. 음, 의미 동일함.
7	T15a.0902_p0188a.18	仙聖所	K0001V20P1048b.11L	德:同"仙", 聲符 통용
8	T28a.1495_p0120a.16	瘵悶吐	K0001V21P0987b.16L	瘵, 瘵:聲符(羊, 差)통용. 음, 의미 유사.
9	T15a.0902_p0171b.17	瘵三者	K0001V20P1074a.21L	瘵, 瘵:聲符(羊, 差)통용. 음, 의미 유사.
10	T28a.1562_p0588a.26	掩蔽日	K0001V27P0784b.26L	掩, 掩:聲符(奄, [掩-扌]) 통용. 이 성분들은 의미(달다) 역시 유사함.
11	T27a.1646_p0401a.16	漚等事	K0001V27P0082a.11L	漚, 漚:聲符(兒, 帶)통용. 보조설명:漚는 수, 난, 유, 연 등의 음이 있으며, "연"음일 때는 "부드럽다"의 의미로 쓰이고, 漚(연)과 음, 의미가 같음. 따라서 從漚, 從漚의 글자들은 통용되는 경우가 많음.
12	T17a.0790_p0789a.02	搃生果	K0001V12P0280a.22L	搃, 搃:聲符(通, 商) 통용
13	T15a.0908_p0210a.21	搃取至	K0001V26P1162a.17L	搃, 搃:聲符(通, 商) 통용
14	T28a.1555_p0962b.17	酢等增	K0001V26P0918a.09L	酢, 酢:聲符(乍, 昔) 통용.
15	T28a.1442_p0588a.08	柁于時	K0001V22P0896a.12L	柁, 柁:同"柁". 여기서 두 글자 모두 柁의 의미로 쓰인 것임. 聲符통용
16	T28a.1442_p0777a.07	萍葉及	K0001V22P0226a.01L	萍, 萍:聲符(泝, 淨) 통용. 음, 의미 유사.
17	T24a.1498_p0826a.21	貨金錢	K0001V24P0889a.10L	貨+爲, 貨:聲符(爲, 化) 통용. 이 글자는 貨로 통합할 수 있을듯함. 차후 다시 확인바람.
18	T08a.0140_p0781a.21	確然不	K0001V20P0772a.12L	確, 確:聲符(確, 隹) 통용
19	T04a.0198_p0077b.16	噉聲雷	K0001V26P0904a.16L	噉, 噉:聲符([噉-口], 奂) 통용.
20	T17a.0721_p0160b.26	搃裂身	K0001V20P0264a.09L	搃, 搃:聲符(國, 巛) 통용. And 搃:搃의 이체(코드 수정 후 주석임)
21	T24a.1458_p0568b.17	搃想亦	K0001V24P0109b.17L	搃, 搃:聲符(厖, 巛) 통용. 의미 유사.
22	T15a.0908_p0214a.02	搃揮麈	K0001V26P1167b.28L	搃, 搃:聲符(厖, 巛) 통용. 보조설명:灑(灑):눈물, 눈물 흘리다. 拭(拭):물방울, 우는 모양. 일반적으 "을다"라는 의미는 "灑"이 쓰임.
23	T01a.0007_p0208a.06	涕泣獻	K0001V16P0174a.08L	

## 첨부자료 2. [聲符 통용]

### 3.1.3 형체가 유사한 경우

字形이 유사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 ㄱ. 義符의 書寫형체가 유사한 경우(書寫 습관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ㄴ. 자형 판독의 오류로 보이는 경우

ㄱ. 義符의 書寫형체가 유사한 경우: 竹과 艸, 手와 木, 日과 目, 广과 疒 처럼 書寫 형체가 유사한 몇몇 義符들이 의미와는 별개로 단순히 書寫의 편의를 위하여 습관처럼 통용되는 경우이다. 이 글자들은 엄밀히 따지면 그 의미가 다르므로 A가 A'의 혹은 A'가 A의 이체자라고 볼 수 있고, 앞 뒤 문장의 의미를 살펴 어느 쪽이 타당한지 확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가 몇몇 義符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 용례 또한 많은 것을 볼 때 옛 사람들의 “書寫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	C	D	E	F	G	H	I	J	K	L
T24a1468_p0889a28	枷鎖不	K0001V24P0646.22L	枷鎖不	枷通“枷”. 枷: 取也의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枷의 의미로 사용됨. 다른 예를 살펴보고 이 예와 마찬가지로 枷의 의미로 쓰인다면 枷로 통합 가능함.	형체 유사					
T24a1442_p0812b17	暇徐行	K0001V22P0369a12L	暇徐行	暇通“暇”	형체 유사					
T22a1426_p0881a16	檢校非	K0001V21P0165a24L	檢校非	檢通“檢”. 手, 木 편방 유사로 인한 통용 예.	형체 유사					
T04a0202_p0891b10	格奇變	K0001V24P1019a28L	格奇變	格同“格”. 格, 格; 手, 木 편방의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 格: “치다”란 의미가 있지만, 문헌에서 사용될 때 대부분은 格의 의미로 사용된다.	형체 유사					
T24a1666_p0318a08	格量須	K0001V27P0202b14L	格量須	格, 格; 手, 木 편방 유사로 인한 통용. 格: “치다”란 의미를 가지지만, 문헌에서 사용될 때 대부분은 格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도 格의 의미중 하나인 “측량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형체 유사					
T24a1621_p0040a18	撤如行	K0001V18P0798a24L	撤如行	撤通“撤”. 手, 木 편방의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 (撤: 격문 “격”, 撤: “교, 격”)	형체 유사					
T24a1461_p0868a22	拱間道	K0001V22P0677a04L	拱間道	拱通“拱”. 拱: 拱: 건축물의 기둥. 手, 木 편방 유사로 인한 통용	형체 유사					
T24a1486_p0082b11	梳梯若	K0001V21P0628a06L	梳梯若	梳通“梳”. 梳: 梳: 가래대. 手, 木 편방의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 예.	형체 유사					
T24a1662_p0846a08	橋常喜	K0001V27P1188a18L	橋常喜	橋通“橋”. 法橋: 중생을 제도하는 일.	형체 유사					
T24a1442_p0820a21	校家事	K0001V22P0294a18L	校家事	校同“校”. 手, 木 편방의 형체 유사로 인해 통용. 설문에는 校였음. (단독재는 校가 校의 俗字라고 함.) 校: 校라고도 함. 校는 校의 의미로 쓰이므로 校로 통합시킬 수 있음. 차후 확인바람.	형체 유사					
T24a1442_p0774a14	校無辭	K0001V22P0226a18L	校無辭	校同“校”. 手, 木 편방의 형체 유사로 인해 통용. 설문에는 校였음. (단독재는 校가 校의 俗字라고 함.) 校: 校라고도 함. 校는 校의 의미로 쓰이므로 校로 통합시킬 수 있음. 차후 확인바람.	형체 유사	신수				
T01a0026_p0868a21	校牙其	K0001V18P0946a28L	校牙其	校同“校”. 手, 木 편방의 형체 유사로 인해 통용. 설문에는 校였음. (단독재는 校가 校의 俗字라고 함.) 校: 校라고도 함. 校는 校의 의미로 쓰이므로 校로 통합시킬 수 있음. 차후 확인바람.	형체 유사	신수				
T24a1662_p0686a08	拘擗醉	K0001V27P0982a04L	拘擗醉	拘通“拘”. 手, 木 편방 형체 유사로 인해 통용.	형체 유사					
T04a0202_p082b18	秦疏悉	K0001V24P1048a18L	秦疏志	秦通“秦”. 本 이체자는 코드 수정해야 함.	형체 유사					
T61a1666_p0112a28	睽違今	K0001V18P1062a08L	睽違今	睽: 睽의 譌作으로 보인다. (睽: 본의는 “눈동자가 서로 엇갈리다”이고, 引伸되어 어긋나고 위배되는 것을 나타냄. 睽: 日入, 分離 등의 의미. 目, 日 편방 형체의 유사로 인한 통용	형체 유사	신수				
T22a1421_p0168a26	祗承情	K0001V22P1206a06L	祗承情	祗通“祗”. 祗(기): 도지 신. 祗(기): 공경하다. 祗와 祗의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 의미를 살펴보면 고려가 타당함.	형체 유사	신수				
T24a1461_p0826a21	祗迎於	K0001V22P0776a18L	祗迎於	祗通“祗”. 祗: 迎: 공손히 맞이함. 祗와 祗의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	형체 유사	신수				
T24a1461_p0222a18	祗揖見	K0001V22P0180a04L	祗揖見	祗通“祗”. 祗: 揖: 공손히 읊하다. 祗와 祗의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	형체 유사	신수				
T24a1442_p0761a08	技條竿	K0001V22P0396a12L	技條竿	技通“技”. 手, 木 편방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	형체 유사	신수				

### 첨부자료 3-1. [형체 유사]

ㄴ. 자형 판독의 오류로 보이는 경우: 이 경우는 減과 減처럼 자형의 형체만 유사하고 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書寫의 편의나 습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字形이 유사하여 판독을 잘못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誤字로 분류할 수도 있다.)

## 고려대장경 전산화 현황

	B	C	D	E	G	H
1	T28a1442_p0774c14	校無辭	F0001V22P0236c14L	校無辭	校:同"校". 手, 木편방의 형체 유사로 인해 통용. 설문에는 校없음. (단속개는 校가 校의 俗字라고 함.) 檢校는 檢校라고도 함. 校는 거의 校의 의미로 쓰이므로 校로 통합시킬 수 있음. 차후 확인바람.	
2	T01a0026_p0884c21	校牙其	F0001V18P0844c21L	校牙其	校:同"校". 手, 木편방의 형체 유사로 인해 통용. 설문에는 校없음. (단속개는 校가 校의 俗字라고 함.) 檢校는 檢校라고도 함. 校는 거의 校의 의미로 쓰이므로 校로 통합시킬 수 있음. 차후 확인바람.	
3	T81a1688_p0112c28	睽達今	F0001V18P1052c08L	睽達今	睽:睽의 譌作으로 보인다. (睽:본의는 "눈동자가 서로 엇갈리다"이고, 引伸되어 어긋나고 위배되는 것을 나타냄. 睽:日入, 分離 등의 의미. 目, 日 편방 형체의 유사로 인한 통용)	
4	T28a1421_p0198c26	祇承情	F0001V22P1209c05L	祇承情	祇:通"祇". 祇:공손히 맞이함. 祇와 祇의 형체유사로 인한 통용.	
5	T28a1461_p0828c21	祇迎於	F0001V22P0775c14L	祇迎於	祇:通"祇". 祇:공손히 맞이함. 祇와 祇의 형체유사로 인한 통용.	
6	T28a1461_p0222c16	祇揖見	F0001V22P0610c04L	祇揖見	祇:通"祇". 祇:공손히 맞이함. 祇와 祇의 형체유사로 인한 통용.	
7	T28a1442_p0761c09	技條篋	F0001V22P029c12L	技條篋	技:通"技". 手, 木 편방 형체유사로 인한 통용	
8	T28a1607_p0048c04	瞻病第	F0001V28P0670c11L	瞻病第	瞻:通"瞻". 앞 뒤 문맥의 의미로 볼 때 瞻(瞻病:병을 살펴보다)이 타당함. (月, 目편방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으로 보인다.)	
9	T28a1488_p0628c18	幢來到	F0001V24P058c11L	幢來到	幢:通"幢". 巾, 巾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	
10	T28a1462_p0454c02	挑渴樹	F0001V22P0685c16L	挑渴樹	挑:通"挑".	
11	T04a0212_p0960c02	藤所纏	F0001V28P060c05L	藤所纏	藤:通"藤". 藤:등나무 덩굴. 藤: 竹制品. 艸, 竹의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	
12	T04a0212_p0978c19	攬人物	F0001V28P068c22L	攬人物	攬:通"攬". 攬:나무이름. 攬:잡다, 주관하다. 手, 木 편방 형체 유사로 인한 통용	
13	T28a1442_p0985c26	握時彼	F0001V22P0090c18L	握時彼	握:通"握". 握:치다 "력". 握:형구, 말구유, 나무이름 "력".	
14	T28a1442_p0988c08	握若攀	F0001V22P0090c08L	握若攀	握:通"握". 握:치다 "력". 握:형구, 말구유, 나무이름 "력".	
15	T28a1688_p0802c11	蔑於他	F0001V24P1222c21L	蔑於他	蔑:通"蔑". 艸, 竹 형체의 유사성으로 인한 통용. (蔑:대검질 "멸". 蔑:엷신여길 "멸")	
16	T09a0190_p0916c05	薄而行	F0001V22P0681c14L	薄而行	薄:通"薄". 보조설명: 幽薄:천자가 거동할때의 행렬. 薄:(부)장부, 총괄하다. 행차. 薄:(박)얇다, 풀술. 형체의 유사성으로 인한 통용 예.	

### 첨부자료 3-2. 신수 [오자]

#### 3.1.4 古今字를 사용한 경우

원래 한 개의 한자는 한 개의 음절과 한 개의 의미를 표현하였을 것이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제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本義외에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그 글자가 다른 의미로 가차되어 버려 本義보다 假借義가 더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거나, 또는 가차되어 본의가 사라지게 되자, 많은 의미 중의 한 의미를 분담하는 글자를 따로 만들거나, 본의를 강조하는 글자를 따로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글자를 만드는 유형에는 本字에 특정 偏旁을 덧붙이거나, 本字의 偏旁을 교체하기도 하고, 아

예 새로운 偏旁끼리 조합시켜 별도의 形聲字를 만드는 등의 방식이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後起字는 本字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本字의 음을 따르고, 의미 역시 本字의 여러 의미 중의 하나를 분담하게 된다. 이 때 本字를 古字라고 하고, 이 본자를 기초로 새로 만들어진 후기자를 今字라고 한다.

고려와 신수에서 서로 古今字로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B	C	D	E	H	I	J
1	T04n0212_p0709a24	戒是故	K0001V28F040421L	誠是故	敬誠:敬戒라고도 한다. 誠는 戒에서 발전된 것으로 "가르치다"의 의미가 보다 강하다. 誠는 戒의 後起 分別字로 볼 수 있다.	고급자	
2	T18n0961_p0282a01	告金剛	K0001V18F074808L	誥金剛	告, 誥:古今字 관계.	고급자	신수 고자
3	T28n1621_p0027a17	拷掠刑	K0001V18F079708L	考掠刑	考, 拷:古今字 관계. ("고문하다"의 의미일 경우)	고급자	
4	T10n0808_p000018	廓郡縣	K0001V12F088811L	郭郡縣	郭, 廓:古今字 관계	고급자	
5	T24n1461_p0816a06	廓時諸	K0001V22F076118L	郭時諸	郭, 廓:古今字 관계	고급자	
6	T28n1690_p0817a08	供三種	K0001V27F046522L	具三種	具, 俱:고급자 관계	고급자	
7	T14n0697_p0888a18	勤苦愁	K0001V12F0104b18L	勤苦愁	勤, 慇:古今字 관계	고급자	
8	T17n0721_p0189a07	女順故	K0001V28F082618L	汝順故	女, 汝:두 글자 모두 가차되어 2인칭 代詞로 사용됨.	고급자	
9	T04n0212_p0727a06	道之以	K0001V28F081807L	導之以	道, 導:古今字 관계	고급자	신수 고자
10	T21n1840_p0898a08	童隸唯	K0001V12F060412L	僮隸唯	童:僮. 僮은 원래 "남자노비"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僮借되어 女동자란 의미로도 쓰임--그러자 노비라는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人편방을 덧붙인 隸자라도 노비를 표현하게 됨. 童, 僮은 음, 의미 같은 글자이고, 용례가 거의 같음. (현재 童동자는 從目的 隸으로 나타내고, 노비는 從人의 僮으로 주로 표현함.)	고급자	신수 고자
11	T01n0005_p0176a18	斂其法	K0001V18F020032L	斂其法	斂, 殫:古今字 관계. 斂은 斂의 후기분화자로서 "斂"의 의미 중 "시체를 열하다"란 의미를 전용으로 나타낸다.	고급자	
12	T04n0196_p0164a18	頓因苦	K0001V18F047402L	頓因苦	頓, 頓:古今字 관계. 越:고개를 넘다.	고급자	
13	T81n1698_p0112a14	頓凡所	K0001V18F1062b18L	頓凡所	頓, 頓:古今字 관계	고급자	신수 고자
14	T10n0808_p0026a08	忘失隨	K0001V12F0887b17L	亡失隨	亡, 忘:古今字 관계.	고급자	
15	T12n0886_p1072a07	冥失智	K0001V18F084618L	冥失智	冥, 瞶:古今字 관계	고급자	신수 고자
16	T17n0721_p0113a28	銜梨牢	K0001V28F018708L	銜梨牢	銜, 牙:古今字 관계	고급자	
17	T28n1698_p0405a28	沒復有	K0001V24F1240117L	歿復有	沒, 歿:古今字 관계. 沒이 古字임.	고급자	
18	T28n1698_p0888a28	沒上流	K0001V27F1282a10L	歿上流	沒, 歿:古今字 관계. 沒이 古字임.	고급자	
19	T28n1698_p0470a11	歿餘處	K0001V27F0888a17L	沒餘處	沒, 歿:古今字 관계. 沒이 古字임.	고급자	신수 고자
20	T28n1442_p0799a02	沒後背	K0001V22F021811L	歿後背	沒, 沒:古今字 관계. 沒"물에 빠지다"가 본의로서, 引伸되어 "죽다"라는 의미 표현하게 됨- 이후 시체를 뜻하는 瘞符 "疒"을 덧붙여 "죽다"란 의미의 전용 글자로 삼은 歿이 쓰임.	고급자	

## 첨부자료 4. [고급자]

### 3.1.5 通假字를 사용한 경우

通假字란 음이 같은 다른 글자를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通假字는 의미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음만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A가 B의 통가자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상황만 벗어나면 A와 B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는 다른 글자로 돌아가게 된다.

고려와 신수에서 서로 通假字로 보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B	C	D	E	H	I	J
1	T04a0202_p0358a28	可罵毀	K0001V29P1015b20L	呵罵毀	可通"呵"	통가자	신수
2	T05a0182ap045a28	迦逆害	K0001V18P1210a06L	加逆害	加通"迦"	통가자	
3	T05a0190_p0787a20	瞰食或	K0001V20P0779b20L	嗽食或	瞰通"嗽"	통가자	신수
4	T04a0212_p0714c06	拒之如	K0001V29P0912b09L	距之如	距通"拒"	통가자	
5	T15a0606_p0189b24	頃間度	K0001V29P1185a08L	傾間度	傾通"頃"	통가자	
6	T24a1462_p0769a28	境頭以	K0001V24P0418b02L	竟頭以	竟通"境"	통가자	
7	T15a0618_p0269a29	輕四百	K0001V19P0956b09L	經四百	輕通"經"	통가자	신수
8	T02a0128ap089c28	經向彼	K0001V19P0644c02L	徑向彼	經通"徑"	통가자	신수
9	T17a0721_p0052c19	願導者	K0001V20P0073b02L	願導者	願通"願"	통가자	
10	T21a1385_p0579c05	霍香供	K0001V18P1126a16L	霍香供	霍通"霍"	통가자	
11	T23a1442_p0787b11	壞憂不	K0001V22P0170b18L	懷憂不	壞通"懷"	통가자	신수
12	T19a1007_p0667b11	掘去一	K0001V13P1008c18L	掘去一	掘通"掘"	통가자	
13	T12a0580_p0064b12	屈受眾	K0001V12P0162c19L	窟受眾	屈通"窟"	통가자	신수
14	T31a1602_p0552c09	捲馳走	K0001V16P0081b09L	捲馳走	捲通"拳"	통가자	
15	T23a1442_p0791c29	譏宜我	K0001V22P0251c16L	機宜我	譏通"機", 機宜: 시기나 형편에 잘 맞음. 신수의 오류로도 볼 수 있음.	통가자	신수
16	T04a0200_p0228a22	怒眼視	K0001V29P0718b12L	努眼視	努通"怒"	통가자	
17	T04a0212_p0668a16	惱支節	K0001V29P0872c19L	惱支節	惱通"腦", 塗通"塗", 三塗: 三惡道를 말함.(三塗(塗의 通假)라고도 한다.)	통가자	신수
18	T04a0202_p0567b18	塗無有	K0001V29P1028b19L	途無有	塗通"塗", 三塗: 三惡道를 말함.(三塗(塗의 通假)라고도 한다.)	통가자	신수
19	T18a0989ap0609a24	塗香藥	K0001V18P1096b12L	塗香藥	塗通"塗"	통가자	신수
20	T24a1458_p0571c07	藤蔓菁	K0001V24P0071a05L	藤蔓菁	함, 苜蓿이라고도 한다. 신수의 통가자로 볼 수 있다.	통가자	신수
21	T14a0440_p0188a04	蓮佛南	K0001V12P1180b16L	連佛南	連通"蓮"	통가자	
22	T04a0196_p0115b19	烈力士	K0001V29P0656b18L	列力士	列通"烈"	통가자	
23	T22a1421_p0179b15	裂破佛	K0001V22P1259a04L	裂破佛	裂通"裂"	통가자	신수

## 첨부자료 5. [통가자]

### 3.1.6 이체자를 사용한 경우

여기에서 이체자라 함은 고려대장경의 이체자본이 아닌 unicode본에 출현하는 이체자 - 현대에도 통용되고 있는 이체자들을 말한다 - 와 신수장경 전산본에 나타나는 이체자를 말함이다. 신수와 고려는 시대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정자 이체자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통용자 유형의 분류를 좀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단 고려대장경 정자 규정(고려대장경 이체자 자전)에 따라 이체자라고 판

단되는 글자들은 정자로 통합시키고 통용자 유형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참고:신수 이체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함)

### 3.1.7 전자한자자전에 수록할 글자

이 항으로 분류된 글자들은 자체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다른 글자의 이체자로 쓰이거나, 혹은 A의 이체자이기도 하면서 B의 이체자이기도 한 글자들이다. 예를 들어 “墮”는 자전에 나타나는 의미는 1.同“惰”(게으르다), 2.同“墮”(떨어지다)으로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자가 사용된 문장은 앞뒤 문맥을 살펴 “게으르다”의 의미라면 “惰”로 귀속시킬 수 있고 “떨어지다”의 의미라면 “墮”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하지만 그 용례가 방대하여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을 전자한자자전에 수록하여 차후 대장경을 읽는 사람들이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0) 신수대장경은 墮를 사용하지 않고, 惰 혹은 墮를 사용하였는데, 그 의미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즉 게으르의 의미일 때를 쓴 경우도 있고, 떨어지의 의미일 때를 쓴 경우도 있다. 이것은 正字化 작업의 오류라고 하기보다 이러한 통용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대장경 전산화 현황

	B	O	D	E	H	I	J
1	T28a1448_p0992a26	疆界深	K0001V22P0655b04	疆界深	疆: 자체정자이면서 疆의 이체로 쓰임. 統: 1. 糠(겨 "강")의 이체. 2. 稷(메벼 "갱")이체. 따라서 이 이체폰트는 統 : 統, 稷( )	권자자권	
2	T24a1464_p0887b02	稊米若	K0001V24P0275a26	稊米若	統: 1. 糠의 이체, 2. 稷의 이체	권자자권	
3	T24a1464_p0886a21	稊米至	K0001V24P0275a11	稊米至	統: 1. 糠의 이체, 2. 稷의 이체	권자자권	
4	T22a1421_p0142a03	咬壞以	K0001V22P1182b1	嗙壞以	嗙: 1. ("교"음일 때) 咬의 이체, 2. ("열"음일 때) 齧의 이체. 보조설명: 嗙과 咬의 관계-咬의 聲符 "交" 대신 "冫"는 "집는" 행위의 주체인 "齒" 意符를 덧붙여 집는 행위 강조한 속자임.	권자자권	
5	T16a0606_p0186a15	嗙之或	K0001V29P1127b22	#之或	嗙: 1. ("교"음일 때) 咬의 이체, 2. ("열"음일 때) 齧의 이체. 여기서는 嗙가 "齧" 의 의미로 쓰임.	권자자권	신수
6	T17a0721_p0887b06	嗙破人	K0001V20P0540a12	齧破人	嗙: 1. ("교"음일 때) 咬의 이체, 3. ("열"음일 때) 齧의 이체. 여기서는 嗙가 "齧" 의 의미로 쓰임.	권자자권	신수
7	T21a1841_p0827b06	斷紙而	K0001V12P1047c06	斬紙而	斬: 1. 斷의 이체. 2. 料의 이체.	권자자권	
8	T28a1442_p0859a07	圖之子	K0001V22P0855c12	畜之子	畜: 1. 圖의 古字 2. 圖의 이체자. (장경 내에서는 주로 圖의 의미로 사용됨)	권자자권	
9	T28a1456_p0249b29	櫺子施	K0001V21P0856b16	櫺子施	櫺: 通"窓". 櫺: 窗을 말함. 櫺: 1. 나무이름. 2. 櫺의 이체이다.	권자자권	신수
10	T16a0607_p0284b14	礪骨城	K0001V29P1287b16	礪骨城	礪: 1. 礪의 이체, 2. 礪의 이체. 礪, 礪: 음, 의미 유사. 어느 쪽이든 모두 가능.	권자자권	
11	T24a1451_p0898a02	槲中馬	K0001V22P0885c17	槲中馬	槲: 1. 나무이름. 난간. 2. 同"槲"	권자자권	
12	T04a0212_p0664a09	齧木杆	K0001V29P0886a20	嗙木杆	嗙: 同"齧". 嗙: 1. 교"음일 때 咬(咬)와 同字이고, 2. "열"음일 때 "齧"과 同字임.	권자자권	
13	T22a1425_p0906b15	巢鼠曳	K0001V21P0121a12	窠鼠曳	窠: 窠의 이체. 窠: 1. 巢(새집 "소")의 이체 2. 窠(둥지 "과")의 이체로 볼 수 있 음. 모두 새집이란 의미를 가짐. 窠: 本字. 穴편방을 덧붙여 굴속에 있는 둥지 를 나타내는 窠만들어짐. 용감수감에 의하면 窠(舌未反)는 古字이고, 窠는 今字라고 함. 즉 窠- 窠 = 窠로 변천한 것일 수 있음. (중간에서 풀 변이)	권자자권	
14	T04a0195_p0100b01	翅鳥欲	K0001V29P0625b1	翅鳥欲	翅: 同"翅". 翅: 1. 翬(xue4): 나아가다, 새가 무리지어 날다. 2. 翅(chi4): 同"翅". 전자자전 분류. (혹은?: 위의 2. 同"翅"는 용감수감 출전인 것을 볼때 불경에 서 翬와 형태 유사한 翬를 翬의 의미로 자주 써서 용감수감에서 설명한 것일 수 있음.)	권자자권	
15	T16a0648_p0677b20	熇高一	K0001V18P0185c10	熇高一	熇: 1. 熇의 이체. 2. 熇의 이체	권자자권	
16	T21a1846_p0868a22	牖名之	K0001V12P0015b22	牖名之	牖: 牖(유)와 牖(응)의 공동이체. 여기서는 牖의 이체. "작은 창"을 말하는 것 임.	권자자권	
17	T05a0190_p0899a16	牖華髮	K0001V20P0945a04	牖華髮	牖: 牖과 牖의 공동이체	권자자권	

첨부자료 6. [전자자전]

3.1.8 기타

위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중복 되는 경우이다. 좀 더 연구한 후에 보다 적절한 분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작업을 통해 고려와 신수에 사용된 통용자의 대략적인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同一字族 義符 통용 예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通假字 사용, 그 다음이 書寫 습관에 따른 의부 통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고금자나 자형 판독의 오류 등의 예도 나타났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작업은 이들 통용자 중 어느 글자가 옳고 어느 글자가 잘못 쓰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장경과 신수장경 내에 산재하는 통용자의 용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상황을 소개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3.2 오자(誤字) - 수정대상

오자의 항목은 다시 전산본과 원본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전산본 오자 중 단순히 원본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이 보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 원본 오자의 경우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도 우선은 판본차이에 분류하여 판단의 신중을 기했다. 따라서 여기 간단히 소개할 원본의 오자들은 그야말로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오자에 한정했다.

전산본 오자는 또한 발생원인에 따라 파형과 코드문제, 유사이체로 구분할 수 있다. 원인에 따른 분류는 이 후 전산화 작업에 있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여겨져 자세히 소개한다.

#### 3.2.1 고려장경 파형(破形)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전산화의 대상은 고려장경 원판이 아닌 동국대에서 출간한 고려대장경 영인본이므로 여러가지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 그 자형이 완벽히 재현되지 않았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작업기간 중 일본에서 한 연구자가 찾아왔는데, 조선시대 혹은 근대에 일본으로 인출된 고려장경 인경본과 역경원에

서 출간한 영인본의 글자 상태가 다르다는 연구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2001년의 범화경 교정 당시에도 지적되었다. 범화경의 다라니 부분에 작은 글씨로 처리된 숫자들은 아예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 삼이 二나 一자로 보이기도 하였다. 여타의 경에서도 아예 한 줄이나 하단에서 한 글자씩 빠진 경우도 있었다. 이번 작업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단순히 원본의 오류나 판본 차이로 미리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이 후 원판의 보존처리에 관련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파형과 파형에 가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글자들은 별도로 고려장경 파형 항목을 두어 목록화 하였다.

여기서는 우선 60 화엄경과 80 화엄경에 들어있는 파형을 다루어 영인본 파형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두 화엄경은 영인본 8권에 실려 있으므로 편의상 8권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우선 역시 단일 글자로 가장 많은 파형이 된 것은 단순한 숫자이다. 8권에는 총 799건의 파형 글자들이 정리되었는데, 이 중 一자 파형이 25자나 되었다.

一자를 포함하여 글자 자체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것은 총 35건, 나머지 글자들은 자형의 일부가 파손되어 전혀 다른 글자가 되어버린 경우이다. 아래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T09n0278_p0709a26	閣莊嚴	
T09n0278_p0572a07	干光明	
T10n0279_p0261a17	間當知	
T10n0286_p0521c05	干微塵	
T10n0279_p0329c16	間一一	
T10n0291_p0603b03	干品其	
K0001V08P0340c25L	問莊嚴	閣赤僂珠網羅覆其上不可思議瑠璃廂問
K0001V08P0191b14L	下光明	臆下光明照十方人安隱曉樂曠手放臆干
K0001V08P0732b02L	問當和	譬如清淨水 影像無來去 法身徧乏問 當和亦如是
K0001V08P1161a15L	二微塵	塵轉別分別禱生驟身細身從層二
K0001V08P0811b08L	門一一	所有臚嚴燿現佛壘等禱生徧乏門
K0001V08P1192b07L	下品其	周鄙四方域 杏一憊有形 獮雨層下品

위의 예 중 問자를 보면 問과 門 두 글자로 파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門 안의 曰자가 아예 인경 혹은 영인되지 않거나, 가운데의 획이 깨져 問이 되어버린 경우이다. 일일이 해석을 하며 선본을 만들어 입력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 항목이나 그 경우 또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오류의 가능성도 늘어날 것이다.

파형이라고 분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했다. 획의 경사나 목판본에서 차지하는 한 글자의 크기 등이 고려되어야 했다. 물론 이 목록 내용 자체가 고려장경 원본 파형이라고 완전히 규정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원본 파형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이런 글자들은 결획이 분명한 데 비해 고려장경 보유판 쪽으로 갈수록 파형에 가필한 예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글자들을 판단하는 데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랐는데, 육안으로 보아 획의 굵기나 동일 위치의 다른 글자들과의 형태가 확연히 다른 경우를 분류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원문의 내용도 일정한 수준에서나마 고려하였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차이로 분류하여 각 경전문가의 대고(待考) 대상으로 하였다.

### 3.2.2 코드 오류

코드 오류는 간략하게는 이체자 코드의 정자정보가 잘못된 경우라 설명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일차적으로는 고려대장경 이체자자전을 삼았고, 원문의 내용도 고려하였다. 참고로 코드오류로 인한 8권의 오류 글자수는 2,822자로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문제들과 관련된 항목들이 많았다. 특히 유사이체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사이체

항목에서 다루기로 한다. 어찌 되었든 이 문제는 고려대장경연구소 방식의 이체자 교정 방식에 있어서 주의 깊게 취급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은 언급해둔다.

### 3.2.3 고려 판각 오류

고려장경은 한 자의 오자도 없다는 통설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실제 작업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대반야경에서부터 보살마하살이 보살마보살, 보살마살살로 판각되는 등 사소한 실수들이 눈에 띄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여기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오각들만 기재하기로 한다.

8권에서는 총 5건의 판각 오류 글자들이 정리되었다.

T10n0308_p0964b20	羅蜜於
T10n0308_p0964b20	蜜於諸
T09n0278_p0643c16	菩薩大
T09n0278_p0591b21	一切諸
T09n0278_p0530a20	(方)

K0001V08P1126c08L	蜜羅於	蝟羅妄訪地中燿偃成就又羸男
K0001V08P1126c08L	羅於諸	蝟羅妄訪地中燿偃成就又羸男
K0001V08P0268b21L	善薩大	來及其狹屬羸蒼大禱訪聲聞庵讚法教
K0001V08P0211c23L	二切諸	定羸誑禱生未曾失時二切訪佛燿悉內有
K0001V08P0148a21L	廣	大吽佛艘嚴經樸第二十

첫째와 둘째 항목은 판각의 순서가 전도된 것이다. 바라밀이라는 용어를 바밀라로 판각하였다. 이러한 전도의 예는 고려장경과 신수장경 모두에서 매우 자주 보이는데, 이 중 해석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많다.

대방광불 화엄경의 方을 아예 판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매우 단순한 예이나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판단의 신중함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이 후 과형으로 정리된 목록과 판본차이 목록을 기초로 연구하면 더욱 많은 오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 3.2.4 유사이체

대교의 목적 항목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문제는 고려장경 이체자 정리 담당자들에게는 매우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이 명칭은 정식적인 것이 아니라 대장경 연구소 교정 실무 담당자들이 편의에 따라 합의한 것이다. 하나의 이체자형이 두 개 이상의 정자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須라는 글자가 불경에 자주 출현하는데, 이 글자는 고 판본에서는 湏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앞의 편방인 水가 필체에 따라 湏 혹은 頃의 편방과 유사하여 이 네 글자들, 須 湏 湏 頃의 글자들은 unicode로 변환했을 경우 본문의 내용과 무관하게 서로 혼잡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8권에서만 이 문제에 의해 오류로 분류된 항목이 3302건에 달했다. 8권에 나타난 글자 중 몇 가지 예들만 살펴보기로 하자.

신수장 위치		
T10n0292_p0654b02	姪	
T09n0278_p0542b19	號	
T10n0285_p0494c22	興	
T10n0292_p0619b24	傳	
T10n0279_p0095b22	間	
고려장 위치		고려장 이체자본
K0001V08P1330c12L	姪	立志無佞畏 爲殊勝導師 禱生 <del>螻</del> 怒癡
K0001V08P0162c22L	兮	佛燿同一 <del>饜</del> 加汝威拉所謂盧舍那佛#願
K0001V08P1095c24L	兜	自讚言 <del>癩</del> 哉 <del>癩</del> 哉佛子仁乃 <del>龜</del> 講是
K0001V08P1279c21L	傳	<del>妹</del> 無量慧義之要順從无 <del>磖</del> 音 <del>糲</del> 通
K0001V08P0534a10L	聞	切 <del>乏</del> 粽恭 <del>搏</del> 供養同灌其頂常爲访佛之所

우측의 내용은 이체자본 내용이다. 이체자본에 표시된 자형이 유사이체자이다.

이체자본의 이체자형은 姪과 姪 두 개의 정자값을 갖는 글자이



다. 여기서는 媻의 이체코드로 정리된 자형을 입력하였으므로 잘못 변환되었다. 두번째 글자는 현재에도 흔하게 사용되는 이체자이다. 그러나, 이체자본의 이 자형은 고려대장경 내에서 兮의 이체로도 사용되었다. (이체자전 51페이지, 영인본 35권 413쪽 2단 9행의 예) 마찬가지로 兮의 이체코드로 정리된 이체자 폰트를 입력하였으므로 나타난 오류이다.

傳과 傳은 이런 희귀한 예들이 아닌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유사이체형이며, 이 글자는 앞의 부수 편방을 달리하며(搏-搏 등) 빈번하게 출현한다. 이 예들은 오류로 분류된 것이지만, 오히려 신수가 잘못 정자화한 글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 예들은 신수 관련 자료에서 보기로 한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대상을 정하였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판본차이로 돌렸으나, 절대다수 분량을 차지하는 已, 己, 巳는 신수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CBETA에서 전산화하면서 자체 교감한 내용 중 已, 己, 巳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므로, 신수 역시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결국 완전한 교감이란 일일이 해석을 해가며 한글자 한글자 정자화 해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 자료가 정리되면 단순히 불경 전산화 뿐 아니라 여타의 한적을 현대적으로 정리하거나 표준화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3.3 판본차이

판본차이는 고려장경과 신수장경의 글자가 어떤 문자학적 관계도 없이 다른 글자로 쓰인 경우를 말한다. 이 중에는 欠과 缺처럼 의미는 동일하나 전혀 다른 글자로 쓰인 예가 있고 有와 無처럼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된 글자들도 있었으며 글자가 아예 빠지거나 첨가된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에서 고려장경과 신수장경에서 각기 서문이나 후기 등을 첨삭한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이는 별도의 항목으로 이 후 정리될 예정이다. 그 내용적인 검토는 여기서 다를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몇 가지 예와 판본차이로 분류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앞의 예와 함께 음역자 특히 다라니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판본차이에 소속시켰다. 한자 자체가 의미로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경우였다. 그러나, 음역자들이 통용자 용례와 동일할 경우에는 판본차이에서 제외하였다.

또 지명이나 인명 등 고유명사들도 판본차이에 소속시켰다. 이는 일일이 내용적인 검토를 해야 하므로 단 시일의 교정 단계에서는 소화되기 어려우며 내용의 정확도도 담보할 수 없다.

애초 대교에 있어 고려장경 전산본의 수정 외에 가장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항목으로 설정된 판본차이는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인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8권에서 나타난 판본차이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T10n0281_p0450b11	(六)言有求
T10n0283_p0454c09	(名)鳩摩羅
T10n0285_p0490a06	(問)菩薩大
T09n0278_p0676a29	(寶)摩尼寶
T10n0282_p0453c03	(使)飽味如
T10n0283_p0456b07	(十)智中悉
T09n0278_p0754c04	(惟)廣明淨
T10n0279_p0033b19	(而)起時即
T10n0281_p0450c24	(在)佛皆由

K0001V08P1120a15L	言有求	退辣四言有求佛無求佛不退辣五
K0001V08P1105b19L	鳩摩羅	第八棘鰲摩羅浮童男編蒼法住
K0001V08P1088c04L	菩薩大	金剛欠編蒼大士謂汙縵月編蒼妄
K0001V08P0303c04L	摩尼寶	齊摩尼寶王周羅編蒼一切如來自在光幢
K0001V08P1113a04L	飽味如	人燿飾味如佛痴咽二化味時偃弄
K0001V08P1108a06L	智中悉	妄曆干智中偃分別知何等為十智
K0001V08P0389b17L	廣明淨	向妄彼城正伏思惟增毗明淨編蒼受生自
K0001V08P0464a07L	起時即	跏時即從一切乏界撐丰塵爾三味搦門跏
K0001V08P1120c21L	佛皆由	佛燿由急餽是法无鏢二樣無量闍

위의 예는 신수의 글자가 고려에는 없는 경우만 모아놓은 것이다.

내용적인 검토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생략하겠다.

T10n0303_p0920b07	伽囉婆
T10n0305_p0929a26	伽樓羅
T09n0278_p0596b13	迦樓羅
T10n0279_p0238a16	迦摩毘
T10n0279_p0238a16	迦摩為

K0001V08P0997a20L	迦囉婆	緊釋囉摩睺囉伽舍迦囉婆囉訶摩
K0001V08P0945c19L	迦樓羅	又俛瞋婆種修羅迦唐羅二釋羅摩
K0001V08P0217b23L	伽樓羅	婆阿修羅伽唐羅緊那羅摩睺囉伽羅刹毗
K0001V08P0704b22L	伽摩毗	擺衲陀為一毗伽摩毗伽摩毗伽摩為一烏
K0001V08P0704b22L	伽摩為	擺衲陀為一毗伽摩毗伽摩毗伽摩為一烏

위의 예는 단순한 음역자의 경우이다. 통용자와 개념이 유사할 수 있으나, 통용자는 문자학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우선 판본차이에 소속시켰다. 어느 쪽의 오류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T10n0294_p0873a10	身
T09n0278_p0540c23	幢蓋悉
T09n0278_p0416b24	當聞佛
T10n0300_p0906a02	當遍開
T10n0279_p0307a29	大眼智

K0001V08P1272b03L	神	身心大歡 <small>雋</small> 十千艘天 <small>拉</small> 充 <small>暉</small> 虛空中
K0001V08P0161a12L	幡蓋悉	種種 <small>禱</small> 香 訪雜寶 <small>艘</small> 無量寶衣 及訪 <small>幡</small> <small>菱</small>
K0001V08P0025a22L	常聞佛	光明旋音聲 佛化身無盡 訪 <small>編</small> 蒼音聲 常聞佛 刹 <small>撐</small>
K0001V08P1042a09L	等遍開	合上下 <small>郁</small> 開合上下等 <small>郁</small> 開合上下
K0001V08P0788a23L	天眼智	天眼智普 <small>証</small> 察明足 <small>謏</small> 住伏知前際清淨明

위의 내용은 고려와 신수가 각기 다른 글자를 쓴 예이다.

이러한 예들은 매우 종류수가 다양하며 한 자종이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경우도 많았다. 영인본 8권에서만 판본차이 예는 총 286건 분류되었다. 이 수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후 목록 재정리 작업에서 조정될 것이다. 이 중 물론 대다수는 음역자이나 내용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글자들도 다수이다.

### 3.4 신수관련 자료

#### 3.4.1 신수장경 전산화 변경자

본래 대교의 목적은 고려장경 교정에 있었으나, 작업 과정에서 신수장경과 관련된 자료들도 정리되었다.

수량으로 가장 많은 것은 신수장경이 전산화하면서 변경한 글자들이다. 다시 말해 신수장경 원문과 신수장경 전산본이 다른 내용 중 계획적인 부분이다. 제한된 코드로 입력하려다 보니 없는 폰트들을 다른 글자로 변경하거나 입력된 국가에서 널리 통용되는 글자로 바꾸어 입력하였다.

T10n0279_p0182c20	琉璃 <small>珂</small>
T10n0279_p0394c27	琉璃 <small>幹</small>
T09n0278_p0502b29	琉璃 <small>車</small>

T09n0278_p0504b04	璃寶車	
T10n0279_p0070a25	剃除鬚	
T10n0292_p0636b16	劫妄言	
T10n0285_p0481a08	劫劫所	
T10n0279_p0181a29	鬥諍多	
K0001V08P0638a08L	瑠璃珂	倉庫金銀摩尼珠瑠璃珂具璧玉洌瑚等
K0001V08P0886c19L	瑠璃幹	大王構寶苳迴蓋虛空中擎以瑠璃幹覆以摩尼網
K0001V08P0115c08L	瓔寶車	御之或復施與瓔寶車無量雜色妙寶莊
K0001V08P0117c07L	瓔寶車	香車或施瓔寶車載以寶女端低殊特顏
K0001V08P0504c12L	剃除鬚	綵除髻髻當願禱生永離煩假究竟寂显
K0001V08P1304b05L	劫妄言	生盜竊姪劫妄言憤舌倦口祠語畵
K0001V08P1077a17L	劫劫所	拉馱舒能瘞計以脣干億百千劫劫
K0001V08P0636a15L	鬥諍多	愛樂多適悅多欣慶多踊載多勇猛多無瞋

이 중에는 통용자나 이체자 관계도 적지 않으나 麩와 糗처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전혀 다른 글자도 있었다. 이러한 예들은 판본차이나 통용자 등에 소속 시킬 수도 있었으나, 대조의 내용을 고려와 신수 원문으로 한정했으므로 신수 관련 자료로 정리했다.

### 3.4.2 신수장경 오자

이는 앞서의 고려장경 판각오자와 마찬가지로 신수장경의 글자가 확연히 틀린 경우에 한하였다. 판본차이로 분류된 글자들 중에서도 신수장경 오자로 보이는 것이 다수였으나 역시 판단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제외하였다.

여기서의 예는 8권이 아닌 다른 권들에서 추출하였다.

T18n0896_p0748c20	緣起觀	
T12n0363_p0319b06	羅多羅	
T20n1128_p0547c14	持伽羅	
K0001V33P1209b01L	緣起觀	爻作慈悲誑無明脣爻作緣起誑又
K0001V34P0230b19L	耨多羅	阿余多羅三穢三菩提乏尊我得菩
K0001V34P0285a07L	特伽羅	名錄訾摩覲特伽羅凡聞法義咸存

자주 확인되는 예로 緣을 緣으로 활자화한 경우이다. 유사한 자형의 경우 오류가 많았다.塚(무덤 총)의 경우는塚(먼지 일어날 봉)으로 표현한 경우가 신수장경 전반에 걸쳐 확인되었다.

또 아누다라삼모삼보리(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아라다라삼모삼보리로 표현한 경우, 보특가라를 보지가라로 잘못 활자화한 경우 등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재미있는 오류사항으로는 고려장경의 간기(刊記)가 신수장경에 그대로 인쇄된 경우가 있었다. 신수장경 15권 711페이지 a단 18행을 보면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敕彫造”라고 되어 있어 원본 교감 과정에서 고려장경의 간기까지 그대로 전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 3.4.3 신수장경 원문 파형

신수장경 역시 활자로 인쇄된 판본이므로 인쇄과정에서의 오류들이 없을 수 없었다. 신수장경에서 글자 자체를 알아볼 수 없거나 아예 해당 자리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다.

### 3.4.4 신수 입력 오류

신수장경의 입력 오류률은 매우 희박했으나, 그래도 발견되는 예가 있었다.

T17n0804_p0750a02	知令汝	
T08n0242_p0783b17	囉多娑	
K0001V34P0200b01L	故令汝	故霏汝學女輪迴佛言脧芻如是補
K0001V34P0214b19L	蘇囉多	唵<C>引</C>暗隸多娑怛鑿<C>三合</C>

첫째 예는 신수 원문을 전산본이 다르게 입력한 경우이며, 두번째 예는 신수장 전산본이 입력 누락한 글자의 예이다.

#### 4. 맺는 말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수장경과 고려장경의 대교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이외에도 고려장경과 신수장경 모두 행 배열이나 경판 배열이 잘못된 것, 페이지 순서가 뒤바뀐 것 등 여러 가지 추출된 사항들이 많으나,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단순히 글자의 사례들만 시하였다.

대교작업이 완료된 후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다시 한번 정리될 예정이다. 이 작업의 결과물들이 불경 전산화 사업과 원문 서지학 연구에 참고되기를 기대한다.